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노사는 '동상이몽'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됐지만 노사 반발 지속 결정 방식 등에 노사 모두 비판하며 제도개선 촉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노사 모두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각각 총파업과 이의제기 등을 예고한 가운데, 때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갈등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노사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이미 2019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도 공익위원 주도” “산출근거 납득 못해”...제도개선 목소리

지난 1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를 맡으며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종 제시안인 1만원과 8850원 사이에서 접점을 잡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고, 노사 반발 속에서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무색하게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노사 양측의 비판이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도 지난해 심의 당시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치 평균을 활용,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1.5%)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이번 산출의 근거가 된 취업자 증가율 대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에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도개선 각론 이견...업종별 차등 적용·산입범위 확대 등 충돌

그러나 제도 개선의 각론을 놓고는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장애인, 수습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도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도 필요하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실질 인상을 감아먹는 계약된 산입 범위를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

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경영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현 정부 출범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보완입법이기도 하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역시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지만,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없애자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주휴시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더한 내년도 실질 최저시급은 1만1003원이 된다.

제도개선 실현은 '글썸'...2019년 무산에 현 정부 임기 종료 앞뒤

이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선 당위성에는 노사 모두 공감하지만 이견이 큰 만큼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께 이 문제가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기도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흐지부지된 만큼 다시 동력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 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하는 ‘이원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있는 데다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박진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서선욱기자

‘해남 배추·무안 양파’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구축

농식품부 지원사업 선정돼 국비 확보



전남 무안군 청계면 양파 수확.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2021년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에 해남 화원농협과 무안농협이 선정돼 전남 총 사업비 200억원 중 85%인 170억원(국비 68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6개소가 사업을 신청해 현장 및 발표평가 등 치열한 경

쟁을 거쳐 전남의 2개소가 선정됐다.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배추, 양파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산지에서 직접 출하 조절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현대화된 출하 조절시설 및 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화원농협은 사업비 100억원(국비 40억원·지방비 30억원·자부담 30억원)으로 저온저장시설 6600여㎡를 비롯해 예냉시설 390㎡ 등을 갖춘 대규모 배추 출하 조절시설을 구축한다.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배추와 봄·가을배추를 시기별로 출하 조절해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한다.

무안농협은 70억원(국비 28억원·지방비 21억원·자부담 21억원)을 들여 저온저장시설 3960여㎡와 현대화된 대규모 큐어링(상처 부위 치유)시설 등을 도입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 수매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양파 주산지의 출하 조절 시설 역할을 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과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 대규모 출하 조절시설이 설치되면 2023년부터 배추·양파의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확기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 65형 출시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The Serif)’ 65형을 한국 시장에 19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43·50·55형에 대형 스크린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65형을 신규로 도입했으며,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더 세리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인 로낭&에르완 부홀렉(Ronan & Erwan Bouroullec) 형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제품으로, 세리프체 글꼴의 알파벳 ‘I’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제품이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The Serif)’ 65형을

한국 시장에 19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43·50·55형에 대형 스크린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65형을 신규로 도입했으며,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더 세리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인 로낭&에르완 부홀렉(Ronan & Erwan Bouroullec) 형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제품으로, 세리프체 글꼴의 알파벳 ‘I’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제품이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선욱기자

순천시 동외동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용면적 74㎡, 84㎡형 1040세대 건립 예정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정책을 2020년 10월경 시행했다.

그러고 동외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잔여세대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외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 7월 16일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성공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정성과 신뢰성을 조합원들에게 확인시킨 성과로 인해 지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는 순천에서는 현재 동외동 2곳, 용당동 1곳, 용당동 1곳 등 4개의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가 되었고, 용당동 남양휴튼 더숲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추진 중이었다.

동외동지역주택조합은 이번 지역주택조합설립 과정에 “사업부지의 철거를 병행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계획승인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동외동 일원에 전용면적 74㎡, 84㎡형 1040세대(예정)로 건립 예정인 해당 아파트는 1차 조합원 607세대를 모집한데 이어 2차 조합원 선착순 150세대 추가 모집 계획 중이다.

조합 측은 아파트 단지명은 MOU 체결 중인 ㈜대우건설 ‘PRUGIO’가 유력하다고 밝히면서 2차 조합원 분양가는 1차보다 약 3000~6000만 원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2024년 말 입주 예정인 ㈜대우건설 ‘PRUGIO’ 아파트는 순천시 아파트 분양가 84㎡ 기준 최고 3억 1100만~3억 9000만 원 선인 일반 아파트 분양권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광제기자

전남도, 전남 여행상품 지원액 대폭 상향

단체여행 차량비 확대·신청서류 간소화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위해 전남 여행상품 관련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지원액도 과격적으로 상향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여행사 등에 차량임차비, 체험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해외관광객 입·출입은 물론 여수국제크루즈항으로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관광객 유치로 전남 관광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전남으로 체험여행하자’에 48개 업체 177개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단체여행 차량 지원비 4~8인 10만원, 8~14인 20만원, 15인 이상 30만원이던 지원 기준을 4~14인 25만원, 15인 이상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상향하고 지원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신청서류도 기존에는 음식점소와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여행객 단체사진, 여행자종합공제조합, 코로나19 방역명부 등으로 많았으나, 숙박 및 식사 영수증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여행 7일 전 사전신청서를 제출

토록 했던 것을 당일 신청도 가능토록 했고, 본질적인 여행상품 운영 훼손이 없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금을 상향하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택을 마련했다”며 “청정 전남의 섬·해양 등 관광상품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전남 관광상품 운영의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과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환기자